총무원장 자승스님 '연임'…불교중흥 '박차'

2013 결산 중앙종무기관

대법원 예규 제정…삼보정재 망실 '예방'
재임대승인 이관 '교구행정 책임제' 시작

■ **총무원** : 지난 10월31일 34대 총무원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0월10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연임하면서, 33대와 34대 집행부의 사업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33대 집행부에서도 도출된 성과 가운데 하나로 종단의 승인 없이는 전통사찰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대법원예규 제정을 꼽을 수 있다. 대법원이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지침'을 3월27일 제정해 삼보정재 망실을 막고 종단의 부동산 관리체계가 보완된 것이다. 이 예규는 표충사 전 주지가 종단 몰래 전통사찰 토지를 불법매각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종단은 물론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이 사건 후 대법원은 종단의 요청을 받아 예규를 제정, 전통사찰 토지 등기관련 업무를 할 때 종단으로부터 정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등기소 담당자의 서류 확인의무도 추가됐다.

예규 공포 후 등기소 담당자들은 사찰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종단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화되고 있어, 전통사찰 및 종단소속 사찰의 토지 불법매각의 여지를 차단했다.

또 재임대 승인업무를 교구에 이관해, 교구행정책임제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당초 말사 주지 임명과 재산 임대승인 관련 사항을 이관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재임대승인건을 교구본사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 교구단위의 책임 있는 부동산관리 능력을 기르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무행정학교를 개설해 사찰 종무원들의 신심을 진작시키고 업무소양을 키워 교구의 역량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일상의례 한글화 사업의 일단락도 빼놓을 수 없다. 한글천수경이 지난 19일 공포하고, 이에 앞서 반야심경, 칠정례 한글화작업을 끝낸 종단은 한글의식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의례위원회는 사시불공, 시식, 천도재, 상장례의식에 대한 한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4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교구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 △대중공의와 신개념 종무행정, 비구니 스님 권익향상 △수행종풍 진작 △총본산 성역화 완수 △재정기반 구축, 승가복지 안정 △승가교육 및 포교혁신 △불교문화 21세기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 △종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8대 기조는 내년에도 단계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연임하면서 집행부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종무원들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교역직 못지않게 주목받은 것이 일반직 종무원이다. 사진은 총무원장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

법인법 승적특별조치법 제정
종헌부결…총림법 취지 퇴색

■ **중앙종회** : 올 한해 중앙종회는 종헌 개정과 총림법 개정과, 법인법,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삼장원염불원법, 출가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굵직한 현안 등을 다뤘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법은 193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중앙종무기관 또는 조계종 스님이 설립하거나 사찰 재산을 출연해 세운 법인을 종단이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삼장원염불원법이 제정되면서 참선 외 염불 간경 등 수행법이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종단 수행기관이 선원 외에 경율론 삼장을 연찬하며 참선하는 삼장원, 정토수행과 참법수행을 중심으로 참선수행을 하는 염불원으로 확대되면서 수행풍토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4회 임시회의에서는 1981년 단일계단을 시행하기 이전에 출가한 스님들의 승적에 관한 내용을 확정해 이로 인한 논란을 끝내고,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승적관련특별조치법도 새롭게 제정됐다. 반면 총림실사 및 공청회까지 진행하면서 주요하게 다뤄진 총림법 개정안은 일부만 통과됐다. 194회 임시회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총림법 개정안 가운데 주지추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 총림법은 개정취지가 퇴색됐다.

한편 비구니 스님의 종무행정 참여 확대를 놓고 회기 중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종헌개정안 가운데 호계위원 자격을 기본의 '비구'에서 '승려'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 비구 종회의원 스님의 발언이 문제가 돼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 전원이 퇴장한 것이다. 해당 스님의 사과로 일단락 됐으나, 비구니 스님 권익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2014년 11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15대 중앙종회는 임기 내에 종헌 개정 및 총무원장 선거 이후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염불원 개설…역대 최대 장학승
시대 부응 승가상 구현에 역점

■ **교육원** : 조계종 교육원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승가교육 교과개편을 안정화시키며 승가교육을 통한 종단과 불교 발전을 서원하며 숨 가쁜 한해를 보냈다.

각급 승가고시도 지난해에 이어 불교지식을 묻는 단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고를 묻는 문제로 변모시켰다. 게다가 2014년부터는 2, 3급 승가고시는 논술뿐만 아니라 단답형문제도 추가하며 4급 승가고시는 조석예불, 사시불공, 108참회, 경전합송 등 일상수행을 평가한 일상수행평가서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승가교육의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불교교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종단 장학승 선발도 역대 최대 인원을 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승가대학원 학인 스님까지 수혜범위를 확산하며 학인 스님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선원으로 이뤄진 수행기관을 다변화해 계사년 동안거에 맞춰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염불원을 개원했다.

교육원은 봉선사 염불원 개원에 이어 경율론 등 삼장과 선어록을 연찬하는 삼장원과 염불원 개원이 확산돼 선원과 염불원, 삼장원 등으로 이뤄진 다양한 수행기관에서 수행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교구본사 등 수행기관 설치에 관심 있는 사찰을 독려하고 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음해성 무분별한 폭로 '엄벌'
양형제도 개선 여전히 '과제'

■ **호계원** :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면서 잇따른 음해성 폭로와 종단 승인 없이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는 사례에 대해 호계원은 가차 없는 판결을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근거 없는 폭로로 종단 안팎에 물의를 일으킨 적광사미에게는 제적을, 전 오어사 장주스님에게는 멸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호계원의 양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올 한해도 꾸준히 이어졌다. 사건 심판시 징계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없다거나, 승풍실추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호법제도 개선 좌담회를 열어 호계원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력이 있는 자는 무죄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양형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무원장 스님도 선거 때 공약을 통해 공정한 사법권 강화를 위해 판례기속원칙을 정립, 판례집 정기간행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어현경 기자

명상캠프·나란다축제 통해
청소년 포교 활성화 나서

■ **포교원** : 조계종 포교원은 2013년 한해 동안 금정총림 범어사와 함께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에 매진하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뛰어넘어 평화통일로 나갈 것을 발원했다. 지난 2012년 11월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등이 평화사절단으로 UN본부를 방문하고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참배하며 한반도평화대회는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후 국립현충원 참배와 한반도 평화기원 수륙재, 평화기원 열린음악회 등을 거쳐 지난 9월2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6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평화대회를 봉행하며 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를 통해 포교원과 부산불교계는 지역포교 역량을 결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명과 평화존중사상을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포교원이 한반도 평화대회에 매진하다보니 부작용도 불거졌다. 지난 11월 열린 정기중앙종회에서 포교원이 포교종책개발과 보급 및 지원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사업만 펼친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포교원은 금강선원, 명상상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10분 집중명상과 청소년명상캠프 등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은 물론 청소년 심성 개발을 위해 앞장섰으며 나란다축제도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포교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첨예한 갈등 현장서 약자 보호활동 앞장

■ 불교시민사회

올해 종단은 우리사회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걸려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았다. 특히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송전탑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밀양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종단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소노동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 공무원 노조 등을 동사섭 법회에 초청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앞장섰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전통불교의식과 노동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열어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규탄하고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강하게 피력했다. 환경위원회는 지난 5월 공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념·인종 넘은 불교NGO
사그라들지 않는 종교편향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350여명의 이주민불자들을 조계사로 초청해 이주노동자의 삶과 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는 무차대회도 열었다.

인종과 이념을 넘은 국제구호단체들의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했다. 특히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주민들의 역량강화, 전문 활동가 양성 등의 사업에 힘을 쏟았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구촌공생회는 철저한 관리 덕분에 캄보디아에서 우물 2000기 완공식을 가졌으며, 로터스월드는 미얀마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불교NGO가운데 최초로 동남아시아 신생독립국 동티모르에 진출한 더프라미스도 아수마노 산간마을의 수로사업을 완료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종교편향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청도군은 군 공식행사에서 특정종교단체를 위한 공연을 선보여 공분을 샀으며, 합천군은 역사를 왜곡하고 불교를 폄훼한 작품을 문학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지역불교계와 문학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당선작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제46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공고

불기2558(2014)년 제46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찰 주지스님께서는 수계 대상 행자가 빠짐없이 수계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교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불기2558(2014). 2. 18.(음 1. 19. 화) ~ 3. 5.(음 2. 5. 수) / 16일

▶**장 소** : 제8교구 본사 직지사(경북 김천시 소재)

▶**신청자격**
1) 불기2557(2013)년 9월 6일까지 교육원 등록 행자 중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에 따른 입문교육과 소정의 행자교육을 필한 자.
2) 불기2557(2013)년 9월 6일 이전 등록 후 입문교육과 소정의 행자교육을 필한 자.
※ 교육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수계교육 시행을 공고합니다.(직할교구 사암은 교육원에서 직접 통보)
※ 제46기 수계교육 수료 후 사미·사미니계 수계식을 갖습니다.

▶**접수기간** : 불기2558(2014) **1월 6일(월) ~ 17일(금)**
• **접수처 : 해당 교구본사**(직할교구 소속 행자는 교육원에 직접 접수)
• 교구본사는 취합된 서류를 1월 17일까지 교육원에 제출

▶**제출서류**
1)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입교지원서(소정양식)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3) 등록사찰 주지 추천서(소정양식)
4) ① 제적등본(호적)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
④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교육원에서 정한 소정 양식과 검사항목)
8) 반명함판사진 4매(삭발, 행자복 착용)

▶**입 교**
1. 수계교육 대상 행자는 교구별로 담당 소임자의 인솔 하에 2014년 **2월 18일(화) 오전 11시까지** 수계교육 장소에 입교하여야 합니다. (직할교구는 사찰별로 소임자의 인솔 하에 입교)
2. 접수장소 : 직지사 설법전 1층 / 11시 접수시작
3. 준비물 : 교구본사 및 직할교구 사찰에 시행하는 공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침구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4. 복 장 : ① 털신 ② 행자복(반드시 2벌 지참)
※ 준비물 및 복장 미 준비 시 귀사 조치함.

▶**5급 승가고시 시행** : 수계교육 마지막 날인 2014년 3월 4일(화)
※ 5급 승가고시를 합격해야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습니다.

▶**사미 · 사미니 가사 제작비** : 13만원
1) 사전 납부 : 〈농협 053-01-27773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문의 – 총무부 02-2011-1703)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전화 : 02-2011-1801) 또는 해당 사찰의 교구본사 종무소

▶**유의사항**
1) 연령 18세 미만인 출가자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수계교육 입교가 가능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본인서약서 및 예정 은사스님 교육보증각서입니다. 서약서 및 교육보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구족계 수지 이전까지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 구족계 수계 자격이 주어집니다.
2) 건강진단서 발급은 국립 · 도립 · 시립의료원 및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 중 교육원에서 요청하는 건강진단서의 모든 항목 검사가 가능한 병원만을 인정합니다.
3) 서식 다운로드(www.buddhism.or.kr) 및 서식확인
〈조계종 홈페이지 – 종무행정 – 종무자료실 · 승가교육 – 수계교육 입교관련 서류 서식(22번 게시물)〉
4)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가 드러날 경우 교육원은 직권으로 행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준비물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기2557(2013)년 1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